

# 대한제국 황실 직계 후손, 93년만 여수 삼황묘 제향

### 삼황제 모신 국내 유일 황실 사당 고종황제 장증손자 이준 황손 참반 “여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 될 것”

여수삼황묘보존회 주최, 여수향교 주관, 여수시 후원의 삼황묘 기신제향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200여명의 참반객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삼황묘는 태조 고황제, 고종 태황제, 순종 효황제 세 분을 모신 국내 유일의 황실 사당이다. 1926년 순종 효황제의 인산일에 참가한 여수 지역 유림대표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이 1927년 민족정신을 북돋고자 여수시 고락산 기슭에 창건했다.

그러다 1939년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됐고, 정영민 등 창건자 3명은 투옥됐다. 1947년 복식됐고, 2006년 삼황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종민사(사적 제381호) 앞의 현 위치(여수시 덕충동)로 옮겨 세워졌다.

묘실은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 지붕 집이며, 경내에 창건 당시의 사적을 기록한 삼황묘 창건사적비, 삼황묘 중수비, 삼황묘 이전사적비 등의 비석이 있다.

해방 후 여수유림이 주도하고 발족한 삼황묘보존회가 주관해 해마다 음력 3월 12일 향사를 올리고 있다. 순종 효황제 흥서 98년째 되는 올해에 태조의 직계 후

손이자 고종의 장증손자, 순종의 장조카 손자인 이준 황손이 직접 삼황묘를 참반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가 순종황제, 둘째가 의친왕, 셋째가 영친왕, 넷째가 덕혜옹주이다. 이중 12남 9녀를 둔 둘째 의친왕 외에는 모두 후사가 끊겨, 의친왕계만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법통을 잇는 유일한 가문이다. 이준 황손은 의친왕의 장손으로 현재 의친왕의 황실 독립운동사를 선양하는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준 황손은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꿋꿋하게 태조, 고종, 순종 할아버지를 모시고 기신제향을 올리는 곳은 전국적으로 여수 밖에 없다”며 “황실 후손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 백여 년 가깝게 여수에서 세 분 황제를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여수는 비단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일 뿐 아니라 충절과 신의에서도 으뜸가는 고장이다. 앞으로 황실 직계후손들이 매 제향 때마다 참석해 여수의 유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여수 삼황묘보존회 이사장은 “1926년 나랏님인 순종황제께서 흥서하시자 여수 유림 200여명이 인산일에 맞춰 상경하려 했지만 당시 일제 치하의 여수경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음을 틈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상경해 나랏님 가시는 길을 지



여수시가 후원하는 삼황묘 기신제향이 지난 15일 치러졌다. 대한제국 황실 직계후손인 이준 황손이 기신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켰다. 여수로 돌아와서 민족 정신 고취를 위해 태조, 고종, 순종 세 분의 황제를 모시는 삼황묘 사당을 건립했는데, 98년만에 대한제국 황실의 직계 후손이 참반해 주셔서 큰 영광이다”고 말했다.

흥선대원군의 종손인 이영주 의친왕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고종황제 등 황실이 무능하고 부패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친일식민사관 프레임이 만연했다”며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근대화 노력과 개혁군

주로서의 고종황제의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제국 황제를 모신 삼황묘는 최근 MZ 세대 사이에 불고 있는 궁중문화 즐기 바람에 발맞춰 여수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황실 직계후손들이 적극 참여해 삼황묘의 창건 의의와 여수 사람들의 충절 정신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틀립 13만본 나눠 드려요” 순천만국가정원서

대한민국 1호 순천만국가정원은 19일과 24일 틀립 알뿌리를 시민과 기관단체에 나누어 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준비한 15만본의 틀립 중 13만본은 시민들에, 나머지 2만본은 기관·단체에 전달될 계획이다.

틀립 나눔 행사는 19일과 24일 오후 2시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틀립은 순천만국가정원에 입장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개인당 틀립 알뿌리 20개를 나누어준다. 또 기관단체의 경우 해당 읍·면·동으로 사전 신청하면 한 기관단체당 최대 200개의 틀립 알뿌리를 현장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순천 낙안배영농조합

순천시 낙안배영농조합법인이 출하하는 ‘낙안배’가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배 분야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 시상식이 열렸다.

배 분야 대표브랜드는 낙안배 등 6개 브랜드가 출품해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등 7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낙안배는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충성도 등 5개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 여성청소년 친환경 위생용품 지원 LG화학 여수공장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이현규 상무)은 17일 여수시청 및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꿈을 품다, 희망 Green Box’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류갑선 여수시 교육복지국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017년 여수 지역 최초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매년 ‘꿈을 품다, 희망 Green Box’ 활동에 참여해 총 4000명의 여성청소년을 지원했다.

LG화학 여수공장, 여수시 사회복지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30여명은 금일 행사에서 위생용품 500상자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위생용품은 여성 청소년이 약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날 지원한 위생용품은 LG화학의 저탄소 친환경 원료인 ‘Bio-SAP’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LG화학의 ‘Bio-SAP’은 화석원료 대신 폐식용유, 팜 부산물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국내 최초 친환경 SAP(고흡수성수지) 제품이다.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은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보성 차 시음·다도 체험 오스트리아 비엔나서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문화회관에서 ‘보성 차(茶) 시음 및 다도 체험행사’를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개관 12주년을 맞아 전통 다기 다도 체험과 다양한 보성 차 시음 행사를 진행해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보성 차(茶) 시음 및 다도 체험행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하스&하스매장에서 열린 ‘보성녹차 특별기획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전미자 이사장이 주최했으며, 한인문화회관은 보성군 해외 진출 교무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람 기자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문화회관에서 ‘보성 차(茶) 시음 및 다도 체험행사’를 전개했다. 보성군 제공

## 여수 MICE,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수시가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미이산산업도시’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여수시는 MICE산업도시 분야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유·무형 제품 또는 기업·단체 브랜드에 대한 △최초상기도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등에 대해 온라인 소비자 설문 조사와 내부 인증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MICE행사를 총



1356건 개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MICE산업의 급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또 대한민국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예울마루&장도), MICE관련 포럼 개최, 한국MICE협회 업무협약 체결 등 다

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시도로 여수 MICE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특히 기존 학·협회 행사 유치에서 기업회의, 해외 인센티브 투어 등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여행사와 업무협약체결(2개국 12개 여행사) 및 해외 기업행사 유치 등 해외 MICE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지난해 이은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최고 MICE브랜드로서 여수의 입지를 굳힘을 물론,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고흥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연간 수시 무상 교체

고흥군이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위치안 내 편리성을 위해 노후되고 낡은 ‘건물번호판’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랜 기간 햇빛 노출로 인해 빛바람과 탈색 등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해 무상 교체를 추진한다.

지난해 고흥읍 등 8개 지역의 건물번호판 1944개를 교체했고, 지난 3월까지 일제 조사를 마친 포두면 등 6개 지역의 낡은 건물번호판과 재교부 민원 신청을 바탕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 321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신청은 연간 가능하며 고흥군청 민원실 지적관리팀(061-830-5263)에 신청할 수 있다. 양기람 기자